

‘글로벌대학’ 경상국립대, 2025학년 4694명 수시모집



9일부터 전체 정원 중 81% 모집
평가방법 간소화 수험생 부담 완화
‘우주항공 방산분야 선도대학’ 비전
“지원 강화 학생 행복대학 만들 것”

경상국립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오는 9일부터 13일 오후 7시까지 대학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전체 모집정원은 4694명으로 이 중 81%인 3801명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2174명 △학생부종합전형 1567명 △실기·실적전형 60명 등이다.

경상대는 입학전형별 평가 방법 간소화를 통해 수험생들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형 선택권을 확대했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상위 3개 영역 합에서 상위 2개 영역 합으로 완화하거나 또는 폐지했다. 학생부 교과반영 교과목은 계열별로 4개 교과목(군)을 반영하며, 진로선택교과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한다. 실기·실적위주전형의 경우 실기고사 과제 및 비율이 변경된다. 음악교육과의 경우 공통실기를 폐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전형 6개 단과대학만 면접고사를 시행하며 그 외 단과대학에서는 면접고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단, 의예과는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한다.

경상대 모집단위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점단분야 학과 통합 및 학부제 신설,



경상국립대학교가 9일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전경.

경상국립대학교 제공



경상국립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9일부터 13일까지 대학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사진은 경상국립대 학생들의 모습.

자율전공학부 도입, 입학정원 변화 등)에 따라 입학전형별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율전공학부는 인문사회자율전공에

서 21명, 자연과학자율전공에서 20명을 선발하며 입학 후 모집단위 혹은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상대는 지난 2023년 11월 경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3월 국내 최초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인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한 경상대는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글로벌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향후 3년 뒤인 2027년까지 △우주항공대학 졸업생 취업률 75%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 졸업생 취업률 95% △글로벌대학 관련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유지율 60% △THE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내 진입 등을 목표로 한다.

경상대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2028년 2월까지 5년간 교육부에서 1000억원, 경남도 530억원을 받아 우주항공대

학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성적 우수 장학생(상위 30%)에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GNU-KAI형 계약정원제, KAI·한화시스템 취업 연계 트랙, 경남소재 우주항공강소기업 취업 연계 트랙을 운영한다. 하계·동계 해외 우수대학 및 기업체 견학을 비롯해 영국 크랜필드 대학, 미국 네바다대학 등과 교환학생 제도도 운영한다.

권진희 경상대 총장은 “전주기적 학생이력관리 및 일괄 취업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학생봉사 지원조직을 신설해 행정지원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학생 행복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국립대 입학처 누리집(<https://new.gnu.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nilbo.com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1일 개막

29일까지 금남로·비엔날레 등지에서 해외초청 등 37차례 거리예술공연
최정상급 스트리트댄스 경연 첫선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인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가을에 찾아온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금남로, 광주비엔날레, 시청 야외음악당 일원에서 잇따라 연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어쩌다 마주친’을 구호(슬로건)로 내걸고, 거리예술축제와 스트리트댄스축제, 광주거리예술 아카데미, 거리예술 네트워크 행사 등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먼저 거리예술축제는 21일 금남로와

22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서커스·연극·무용·음악극·가면극·미술포포먼스 등 해외초청·국내공모작 총 22개 작품을 37차례 공연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인 ‘프린지리그 I’를 28·29일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연다. 신나는 음악 속에 화려한 댄스 경연을 벌이는 프린지리그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스트리트댄서들이 참가해 팀 퍼포먼스, 1대 1, 3대 3 부문별로 치열한 승부를 겨룬다.

광주시민과 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자체 제작공연 ‘아스팔트 부르스’가 21일 금남로 1~4가에서 선보인다.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정체성과 화합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인 ‘아스팔트 부르스’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거리예술 공연으로 표현, 금남로를 찾은 시민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광주 거리예술 아카데미’는 지역 거리예술 창작·제작 활성화 및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할매와 무등산호랑이’, 나래 ‘걱정인형을 살려주세요’, SOL뮤직컴퍼니의 ‘호텔 SOL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행복한 문화제작소수풀림의 ‘포트럭파티’ 4개 작품을 선정, 21일과 22일 금남로와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공연한다.

이밖에 전일빌딩 245에서는 프린지페스티벌 참여 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축제, 새로운 거리예술을 주제로 자유토론 등 전문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이번 축제의 주제인 ‘어쩌다 마주친’처럼 어쩌다 마주친 거리예술을 통해 가족·연인·친구들과 새로운 만남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오늘 ‘뇌혈관질환예방 캠페인’ 전개

광주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1~7일)을 맞아 6일 오후 롯데아울렛 월드점점 앞에서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

테롤 수치를 알고, 예방관리 수칙에 따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와 5개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단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광산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광주금연지원센터,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본인의 혈압·혈당 등 검사부터 ‘자기혈관 숫자알기’ 퀴즈 이벤트, 영양상담, 금연상담 등 다양한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보건소는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혈당측정, 건강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빼어난 남도 풍광… 전남서 드라이브 즐기세요”

전남도, 가을 추천관광지 선정
거금해안도로·섬진강변 등 매력

전남도가 가을을 맞아 경관이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고흥 거금해안도로, 곡성 섬진강변, 무안 조금나루해안일주도로, 신안 흑산도 일주도로를 9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 거금해안도로(호남해안로드 13코스)는 국토교통부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에 선정됐다. 다도해 풍경이 아름다운 이 도로는 거금대교를 지나 익금해변과 오천항 쪽으로 달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림같은 풍경을 볼 수 있어 바이크와 자전거 동호회의 필수 여행지로 소문난 곳이다.

거금대교는 자동차 도로(위층 구간), 자전거와 도보도로(아래층 구간)로 나뉘어 안전하게 거금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숯불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 녹동항 장어요리 등 산지 재료로 만든 맛깔난 음식이 일품이다.

곡성 섬진강변은 자전거도로, 17번 국도, 증기기관 열차, 섬진강 둘레길까지 4개의 길을 이용해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로 은어를 비롯해 30여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주변 식당에서 은어회와 은어구이, 참게를 곁들인 민물매운탕을 맛볼 수 있다.

무안 조금나루 해안일주도로는 송림숲

과 어우러진 갯벌과 바다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풍광 명소다. 망운면 조금나루 해변에서 시작해 현경면 봉오제까지 10.75km에 이른다. 구간마다 만남의 길, 자연행복의 길, 노을길, 느리게 걷는 길, 4개 산책로가 조성돼 드라이브를 즐기다 잠시 차에서 내려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신안 흑산도 해안일주도로는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다.

자가용으로 드라이브를 즐긴다면 신안 송공항에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다면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해상왕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왕성하게 펼쳤던 상라봉 정상 전망대에 올라 흑산도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유배문화공원, 세조각공원 등을 둘러보며 흑산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의 정취도 느껴볼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체험상품을 정가 대비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1+1 블루투어 특별행사’를 추진 중이다.

행사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을 통해 예약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며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는 드라이브 여행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